기술개발 촉진만이 우리의 살 길

李 鍾 九 국방부장관

> 기술개발의 촉진만이 냉엄한 新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며,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개발영역과 국방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핵심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며,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향후 5년내에 국방비의 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세계정세는 동구권의 민주화, 동·서독의 통일, 걸프전쟁, 소련 쿠데타 실패와 공산당 몰락, 美·蘇의 전술 핵무기 감축선언 등 탈냉전, 화해 추세속에 있으나, 군사적 양극체제의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은 국지분쟁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국제 신질서 구축을 위한 세력 재편과정에 놓여 있으며, 주변 4大 강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은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군사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과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UN가입, 핵안정협정 체결 추진, 南北고위급 회담 재개 등 유화(宥和)정책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폐쇄정책과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최신무기 개발 및 생산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결코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과학화된 質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할 시점이며, 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입니다.

과거 5천년 민족사에서 우리의 조병(造兵) 역사를 살펴보면, 3國시대에는 고구려의 맥궁(貊弓), 신라의 제궁(製弓)기술, 백제의 도검(刀劍) 제조기술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진수준에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성능과 공예적 가치도 뛰어난 무기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말엽에는 최무선이 흑색화약 제조에 성공,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 및 화기 제조를 전담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세종代에는 화약 개량, 新화기 개발 등 독자적인 기술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일본이 화약병기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1백 50년 이상 중국과 더불어 동양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왔었으나, 위정자들의 관심 소홀로 병기개발활동은 점차 쇠퇴할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외침을 허용하고 말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양란(兩亂)을 겪은 후에도 청나라와의 관계 유지 명분과 세도정치로 인하여 우리의 병기개발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일본은 19세기 중반 문호개방 이래 근대적 군수공업 기반 조성에 주력함으로써, 우리의 군사력은 결정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일제(日帝)에 강점당하는 민족적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교훈은 병기개발활동의 쇠퇴와 외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개발 촉진만이 우리의 살 길

그동안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초 자주국방의 목표아래 재래식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이땅에 없었던 방위산업 공장을 창원 공업단지 중심으로 건설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과 연계하여 무기 국내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룩한 국방연구개발은

우리는 지금은 물론 통일이후를 생각해 보더라도 과학화된 質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하며 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입니다. 사진은 이번 대토론회의 옥외전시장 모습

국내개발보다 해외구매 위주로 추진하여 국방연구개발의 활기가 꺾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첨단 핵심기술 개발소홀로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는 '70년대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호기(好機)였음에도 불구하고, 88올림픽 등 국가안보의 현실적인 면에 밀려 국내개발보다는 해외구매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의 활기가 꺾여져 버린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의 승리는 효율적인 전쟁지도와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체계, 공세적 전략개념, 조기 제공권 확보, C^3I 자동화 체제로 전력효율을 최적화한 것이 전승(戰勝)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고도 첨단무기체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고난의 역사속에서 터득한 뼈아픈 경험요소를 밑거름으로 21세기를 향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군사기술의 첨단과학화로 정밀 유도무기, 전자전 능력 확보, 우주공간의 안보영역화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같은 新군사력 건설은 핵심기술을 동반한 고도 첨단병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이룩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컴퓨터 기술, 전자광학 기술, 신소재 기술, 실물질 기술 등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신기술 개발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먼저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이 해결될수 있도록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근원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조성된 기술기반에 힘입어 고도의 과학화된 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면,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국방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조국번영을 보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국방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안

이라 생각하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개발영역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구매에 의존해오던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수 있도록 中·長期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개발영역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은 어느 한 집단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연구개발활동을 방산업체주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의 주체가 더욱더 넓어질수 있도록 추진하고저 합니다.

둘째, 국방기술 개발 저변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과거에 미진(未盡)했던 학계(學界) 기초연구 위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수 여러분과 대학생들의 연구활동이 깊게 뿌리 내릴수 있도록 연구비, 연구장비 및 시설 등도 확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國科硏, 출연(出捐)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로 하여금 응용, 실용화할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세계 첨단기술 연구가 달성될수 있도록 몇 개의 대학 特化연구소를 추진할뿐만 아니라, 국방 연구인력도 대학에서 부터 조기 발굴하여 기술개발 촉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핵심기술 위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고도 첨단기술 확보의 시간과 돈을 절감하는 길은 이미 개발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전받는 길입니다.

일본의 경우 선진기술 모방을 통해 기술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발휘하여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해외구매나 기술도입생산에서 부족한 핵심기술획득 위주의 절충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개발활동을 병행추진하고, 확보된 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선진 기술정보 수집에 노력한다면 우리 기술은 더욱 빨리, 더욱 높게 발전될 것입니다.

넷째, 품질 혁신운동의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무기체계 품질활동은 미국장비의 국내생산으로 인해 미국규격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품질검사활동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제품품질 개선, 생산공정 개선, 품질관리 절차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규격을 제정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하여, 방산제품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활성화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현재 국방비 대비(對比) 약 2.5% 수준에서 향후 5년내에 약 5.0% 수준으로 투자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의 協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기술장벽을 넘어서는 길은 '70년대 가졌던 연구개발 의욕을 되찾아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연구개발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산·학·연의 협력을 생명으로 알고 맡은바 연구활동에 매진(邁進)해야 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관리자들은 연구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힘 있는 자 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냉엄한 국제신질서 속에서,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방기술 개발과 품질혁신운동을 소신껏 펼쳐나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땀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